



즉시 배포용: 2023년 8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자마이카 역 인근 탈선 사고 이후 롱아일랜드 철도 서비스에 대한 최신 소식을 뉴욕 주민에게 전달

동쪽으로 향하는 험스테드 열차는 홀리스와 퀸즈 빌리지 무정차 통과 중

뉴욕시 교통 버스가 자마이카에서 퀸즈 빌리지까지 Q2, Q3, Q8, Q110 버스에서 LIRR 요금 수령

승객들은 자마이카 운행 스케줄 변경 및 연착 대비 필요, MTA 트레인타임 앱과 MTA.info에서 최신 소식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자마이카 역(Jamaica Station) 동쪽에서 오늘 오전 발생한 탈선 사고 이후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서비스에 대한 최신 소식을 뉴욕 주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사고 이후 직원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의 탈선 사고 이후, 저는 피해 승객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면 재개할 것을 MTA와 기타 주정부 인력에 지시했습니다. 사고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MTA 직원과 비상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승객들은 내일 오후까지 자마이카 역의 운행 스케줄 변경 및 지연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험스테드 브랜치(Eastbound Hempstead Branch) 열차는 홀리스와 퀸즈 빌리지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New York City Transit)은 Q2, Q3, Q8, Q110 버스를 활용해 자마이카와 퀸즈 빌리지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트레인타임(TrainTime) 앱과 [mta.info](https://www.mta.info) 등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에서 출발해 험스테드로 향하던 722번 열차에서 오전 11시 12분경 여덟 번째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승객 약 100명이 탑승 중이었고 신속하게 힐스테드 유지보수 시설(Hillside Maintenance Facility) 및 자마이카, 열차 승무원 등 롱아일랜드 철도 인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뉴욕시 소방국(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및 LIRR가 구조 작업을 시작해 승객을 다음 역으로 이송했습니다. 13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었으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직원과 장비를 현장에 파견해 전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조 과정에는 리레일링, 피해 복구, 기타 인프라 복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